

6·25전쟁기 북한의 ‘후방정책’

— 후방 전시동원에 대한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

朴 英 子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

1. 서 론
2. 전시동원체제 형성
3. 전선 및 유격대 동원
4. 기금 및 재정 동원
5. 전선 및 피해자 원호
6. 결 론

1. 서 론

북한연구의 범위에서 주목할 만한 기존 6·25전쟁 연구는 상층부 권력집단의 의도와 계획, 전쟁 발발과 그 기원, 그리고 전쟁의 성격과 국제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¹⁾ 그러나 전쟁은 전선과 전투만 있었던 것이 아니

1) 이와 관련된 대표적 연구로는 와다 하루끼 저·서동만 역, 『한국전쟁』(창작과 비평사,

다. 비전투적인 정치행위들이 후방에서 진행되었고, 이것은 전투 못지않게 중요하였다.²⁾

『전쟁론』의 저자 클라우제비츠가 지적했듯이 ① 전쟁은 집약된 정치의 무대이며, ② 구체적 국면에 따라 그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과 같고 그 현상 전체를 통하여 지배적인 여러 경향을 고찰하면, ③ 일종의 기묘한 삼위일체를 확인할 수 있다.³⁾ 전쟁 지휘부·통치기구·구성원의 삼위일체이다. 그리고 전쟁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전투가 벌어지는 ‘전방’뿐 아니라 전투를 엄호하고 지원하는 ‘후방’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밝혔듯이 기존 북한연구 범주에서 6·25전쟁 관련연구는 대부분 ‘전방’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국제관계와 전쟁지휘부 및 권력관계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전쟁문제에 천착하는 것은 전쟁이 단지 전투의 사실규명과 승패로 끝나지 않고, ① 전투의 이면에서 전투를 지원하는 후방주민들과 ② 그 속에서 싸우고 죽어가는 총을 갖지 않은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 ③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치권력의 통치와 ④ 후방에서 벌어진 다양한 전시동원사업과 전쟁의 고통이 이후 역사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며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쟁의 가장 큰 피해는 전투보다 후방에서 벌어진 대규모 동원과 집단적 광기 등 광기의 스펙타클(spectacle)이었다. 6·25전쟁으로 인한 사상자 분포를 볼 때, 비전투요원인 일반인 사상자 수가 전투요원인 군인의 약 3~4배 이상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6·25전쟁시기 북한주민의 사상자 수가 남한주민 사상자 수의 약 3배에 달했으며, 군인에 비해 일반인의 사상자 수는 남한은 약 3배, 북한은 약 4배 이상 많았다.⁴⁾

2001);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 결정과 발발』(나남, 1996a);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원인과 기원』(나남, 1996b); 브루스 커밍스 저·김주환 역, 『한국전쟁의 기원』 上·下(청사, 1986) 등이 있다.

2) 김동춘, 『전쟁과 사회』(돌베개, 2000), 51쪽.

3) 클라우제비츠 저·강찬구 역, 『전쟁론 上』(병학사, 1991), 52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전쟁과 관련한 수많은 연구들 중 북한의 후방에서 벌어진 북한정권의 정책과 정치, 그리고 후방주민들, 특히 그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전시(戰時) 북한여성의 삶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 이유는 자료접근의 어려움이라는 일차적 한계 때문이기도 하였으나, 더 큰 요인은 전쟁을 상층 전쟁지휘부와 전투 중심으로 사고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그동안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던 6·25전쟁시기 북한정권의 후방정책을 연구하려 한다. 전시 북한정권의 후방정책을 연구하면서 전시동원사업과 후방의 주역이 되어야 했던 여성의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의 『로동신문』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① 북한연구가 양적·질적으로 발전하여 수많은 학자를 양산했고, ② 수많은 6·25전쟁 관련 연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③ 6·25전쟁시기 후방주민의 동원과 삶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6·25전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북한정권의 '후방정책'을 규명함과 동시에 후방주민의 삶, 특히 다수를 차지했던 북한여성의 역사 관련 연구로서도 그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6·25전쟁 과정에서 북한정권은 주민들을 어떻게 동원하였는가? 후방에서 이루어진 북한정권의 대중사업은 무엇이었는가? 다수 북한남성들이 전투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 북한여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4) 6·25전쟁으로 인한 남한주민의 사상자 수는 민간인은 사망 373,599명, 남북 84,532명, 실종과 포로 303,212명, 전상 229,625명으로 총 990,968명이었다. 한편 군인은 사망 29,294명, 남북 65,601명, 실종과 포로 105,672명, 전상 101,907명으로 총 301,864명이었다. 그래서 남한주민 전체 합계 사상자 수는 1,292,832명이었다. 이에 비해 피해 규모가 훨씬 컸던 북한주민의 사상자 수는 민간인은 사망 406,000명, 전상 1,594,000명, 실종 및 포로 680,000명으로 합계 2,680,000명이었다. 한편 군인은 사망 294,151명, 전상 225,949명, 실종 및 포로 91,206명으로 합계 611,206명이었다. 그리하여 북한주민 전체 합계 사상자 수는 3,291,206명이었다. 전광희, 「한국전쟁과 남북한 인구의 변화」,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풀빛, 1992), 66쪽.

본 논문은 그 동안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밝혀지지 않은 6·25전쟁시기 북한 정권의 ‘후방정책’을 전시동원 및 후방주민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려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으로 신문이라는 사실보도성과 일간지라는 현장성 때문에 북한문헌 중 정치적 가공의 위험성이 적어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로 평가되는 『로동신문』을 주요한 연구자료로 사용한다. 그 외 『김일성저작집』 및 『조선녀성』, 그리고 북한에서 발행된 각종 단행본과 전쟁관련 수기 등을 참조한다.

또한 이와 같은 공신력 있는 1차 사료(史料)일지라도 북한사료가 가지고 있는 선전·선동적 레토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존연구인 2차 문헌과의 교차비교로 역사정황을 동시 고려하여 최대한 객관성을 검증하여 사용하려 한다.⁵⁾

2. 전시동원체제 형성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개시한 북한정권은 이승만 세력이 일으킨 “동족상잔의 내전을 반대하여 우리가 진행하는 전쟁은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자유와 민주를 위한 정의의 전쟁”이라는 6월 26일 김일성의 방송연설을 시작으로 전시체제 돌입을 공식화한다.⁶⁾ 북한은 6·25전쟁의 성격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기 위한 정의의 조국 해방전쟁”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

5) 그러나 생생한 전쟁사 서술을 위해 직접 인용과 1차 문헌 인용이 많기 때문에, 자칫 북한의 입장을 필자의 주장으로 오해하거나 북한식 어법이 다소 여과 없이 서술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북측의 주장 및 증언을 역사적 사실과 필자의 주장으로 오해하지 않는 세심한 독해를 바란다.

6) 김일성,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호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성장군의 방송연설」, 『조선녀성』, 1950년 7월호.

족적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혁명전쟁”이라고 밝히며, 모든 힘을 전쟁승리에 바칠 것을 호소한다.⁷⁾

북한정권은 먼저 모든 권력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기 위해 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50년 6월 26일 정령 「군사위원회조직에 관하여」를 채택하여 통일적 지도기구로써 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김일성을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군사위원회는 전시 국가 및 군대의 최고기관이었으며, 위원회 산하에 내각의 각 성과 국, 그리고 국가중앙기관과 각 도·시 지방군 정부를 두었다. 지방 군 정부는 도 또는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민군 대표와 내무기관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주권과 일체 권력을 집중시키고, 군사위원회 지시에 절대 복종하도록 하였다. 군사위원회 조직과 함께 당중앙위원회는 6월 27일 전체 당단체와 당원들에게 편지로 전시 임무를 지시했다.⁸⁾

기구 개편과 함께 전시동원체제 확립을 위해 북한 전역에 전시상태가 선포되고 전시동원령이 발표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50년 6월 27일 정령 「전시상태에 관하여」를 채택하여 전시상태를 선포한 후, 1950년 7월 1일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지역에 동원을 선포함에 관하여」를 발표한다. 이 정령을 통해 전시 동원대상자를 1914~1932년 사이 출생한 전체 공민으로 규정하고, 1950년 7월 1일을 동원 첫날로 하였다.⁹⁾ 즉 1950년 당시 18~36세 성인 남녀가 1차 병역의무자였다.

또한 각급 정권사업을 전시동원체제로 전환하였다. 특히, “계급적 원수들의 파괴압해 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인민대중을 전시생산계획 완수에로 조직 동원하는 기능”과 사회질서유지 사업이 강조되었다. 특별무장자위대를

7) 허중호,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98-99쪽.

8) 위의 책, 123-125쪽. 편지내용은 첫째, 전시환경에 맞게 당사업을 개편하고 당조직의 지도역할과 당원의 역할 강조, 둘째, 당내부의 혁명적 규율 강화, 셋째, 정권의 프롤레타리아독재 기능 강화와 도피·요인 분자, 간첩·파괴압해분자 적발 숙청, 넷째, 전시생산 보장, 다섯째, 인민군 후방가족과 부상병 원호사업 강화였다.

9) 위의 책, 127쪽·245쪽.

조직하여 지방자위사업을 강화하며, 여맹·민청·직맹·농근맹 등 사회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1950년 7월 생산·운수·기본건설·노력배치 등 경제 전반을 다시 검토하여, 1950년 3/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새로 채택하였다. 그 내용은 기본건설공사 중단, 군수공업에 원료와 자재 우선보장, 인민군대에 필수품과 식료품의 공급비중 확대, 군수품수송 1차 보장이었다. 그리고 연간계획을 분기별 계획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보건사업을 개편하여 1950년 6월 29일 군사위원회 명령으로 전방구호대가 조직되어 전선에 파견되고, 야전병원 설치와 부상병치료·후송사업체계를 갖추었다.¹⁰⁾

이러한 급속한 전시동원체제 수립은 1949년부터 북한사회에서 진행되었던 동원체제 형성의 결과였다. 1949년부터 북한은 “조국보위의 임무는 국민의 최대의무 최대영예”라는 제목 하에 연속해서 사회구성원의 동원의무¹¹⁾와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주위에 굳게 뭉쳐” 주저와 동요 없이 일체화될 것을 강조했다.¹²⁾ 또한 “조선인민군대는 인민 속에서 나왔으며 철두철미하게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의 무력이기 때문에 인민들과의 혈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들로부터 절대한 사랑 및 두터운 신앙과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며 군(軍)과의 일체화를 강조하였다.¹³⁾ 이러한 전시동원체제 수립을 주도한 조국보위후원회 결성준비위원회가 1949년 7월 15일 조직되었다.¹⁴⁾

이 후원회는 1949년 8월까지 하급단체 2만 5천개를 조직하였으며, 총 269만 1천명의 회원을 보유하였다. 후원회의 설립목적은 첫째, 인민군대와 인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군대를 후원하는 것, 둘째, 동원체제로 일반대중을

10) 앞의 책, 128-129쪽·130-132쪽.

11) 『로동신문』, 49/05/18; 『로동신문』, 49/05/20; 『로동신문』, 49/05/22.

12) 『로동신문』, 49/05/21; 『로동신문』, 49/07/01; 『로동신문』, 49/07/17.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각 도위원회 결성과정에 대해서는 1949년 7월 기간 『로동신문』 참조.

13) 『로동신문』, 49/05/22.

14) 『로동신문』, 49/07/17.

집단화하는 것, 셋째, 인민군 후방가족 원호사업이었다. 후원회는 설립과 동시에 왕성하게 활동하여, 군비 마련사업에서만도 설립 두 달 후인 10월 헌납액이 2천 8백만원에 달하였다.¹⁵⁾ 후원회는 인민군 후방가족 원호사업을 항일애국투사후원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애국투사 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었고, 이 기구에는 주민 160만 명이 가입되었다.¹⁶⁾ 동원체제 형성은 1949년 여맹 기관지 『조선녀성』에도 잘 드러나 있다. 여맹은 지속적인 관개공사에 여성동원, 비행기·함대 등 헌납운동, 군비마련과 인민군대가족 원호사업을 각 지역 여맹의 임무로 하였다.¹⁷⁾

1949년부터 본격화된 각종 동원조직과 동원체제 형성으로 6·25전쟁 발발이후 북한이 급속한 전시동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북한에서 대중적인 동원체제가 가능했던 조건은 첫째, 전 구성원을 이념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적대와 증오, 그리고 통일을 위한 체계적 이념의 존재, 둘째, 방대한 동원조직의 존재와 이 조직들과 군대의 직간접적 연계, 셋째, 동원을 위한 구체적 규정의 존재 등이었다.¹⁸⁾

3. 전선 및 유격대 동원

(1) 전선 탄원운동과 동원

김일성의 방송연설을 시작으로 각 기관에서는 군중대회와 종업원회의, 민청열성자회의, 민청초급단체총회 등 각종 대중집회와 모임을 통해 전선탄

15)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II』, 서울: 나남, 1996, 780쪽.

16) 『로동신문』, 49/12/30.

17) 전시동원체제 하에서 여맹의 임무에 대해서는 『조선녀성』, 1949년 각 월호 참조.

18) 동원을 위한 각종 이념·조직·규정은 군대와 연결되었고, 개인은 각 단체에 복수가입을 통해 중첩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박명림, 앞의 책, 789쪽.

원을 추동하였다.¹⁹⁾ 대표적으로 각 도·시·군별로 진행된 군중대회에서는 ‘인민의 자유의지에 의한 전쟁참여’라는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미리 준비된 결의문 낭독으로 전쟁의 정당성과 결사항쟁의 분위기를 조성했으며,²⁰⁾ 동원에 적극적인 주민들의 탄원서와 맹세를 발표하게 하여 극적 긴장감과 결의를 높였던 것이다. 전쟁과정에서 공화국 영웅칭호를 받은 리수복은 전선에 나갈 것을 탄원하면서 탄원서에 “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란 해방된 조선청년이다. 나는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장군님의 명령대로 미제강도놈들의 침해로부터 행복한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손에 총을 잡고 전선으로 나갈 것을 피 끊는 조선청년의 심장으로 탄원한다”²¹⁾라고 하였다. 한 철도노동자는 전선탄원을 하면서 “미제는 우리 공화국을 파렴치하게 침범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자유롭고 행복한 새 민주제도를 체험한 우리들은 결코 놈들의 식민지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조국의 자유와 공화국정부가 헌법으로써 보장해준 로력의 영예와 자유를 고수하기 위하여 우리 강토에 침입한 미제의 마지막 한놈까지 때려부시고야 말 것이다”²²⁾라는 맹세로 대중을 선전선동하고 집단적 결의를 높이게 하였다.

평양·송림·해주·신의주·남포·홍남·원산·라남·함흥을 비롯한 공장지구에서는 쟁기대회를 개최하고 노동자연대를 구성하며, 농민들은 열성자대회와 민청초급단체총회 등을 통해 청년학생들은 각 학교별로 민청총회

19) 허중호, 앞의 책, 242쪽.

20) 1950년 7월 2일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국의 통일과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쟁기한 우리 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조선 인민들은 이미 쟁취한 제반 민주개혁의 성과를 사수하며 공화국 남반부동포들을 반동통치하에서 구원하며 인민공화국의 기치하에 조국을 통일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용감성과 대담성과 창발성을 더욱 발휘할 것이며 모든 애국적 충성을 다하여 피에 굶주린 미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 매국역도들을 우리 조국강토에 한놈도 남기지 않고 격멸소탕하기 위하여 마지막 피한방울까지 결사적으로 싸울 것이다”. 『로동신문』, 50/07/03.

21) 탄원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국을 지켜싸운 영웅전사들 1』, 평양:금성청년출판사, 1978.

22) 『로동신문』, 50/07/30.

를 통해 전선출동을 조직하였다. 이러한 동원체제의 작동으로 전쟁발발 후 불과 3~4일 동안 청년학생만 약 81,858명이 조직되었다.²³⁾ 1950년 7월 1일 전선동원이 시작된 이래 7월 8일 현재 여성 10만 여명이 전선탄원을 하여 일부는 전선에 간호사와 통신병 등으로 나가고, 농촌여성과 기타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여성들은 출동지령이 있을 때까지 공장·광산에서 전시생산에 복무하도록 배치되었다.²⁴⁾ 7월 11일 현재 약 74만 명의 노동자·농민·사무원·청년학생 등이 전선으로 나갈 것을 탄원하였다. 그 중 30% 정도 되는 23만여 명이 여성이었다.²⁵⁾ 1950년 8월 15일 현재 전체 전선탄원자가 849,000여 명²⁶⁾에 달했으며, 9월 말 현재 여성 344,121명이 전선에 동원되었다. 그 중 수십만의 여성이 인민군 부상병 간호를 위해 야전병원에서 종군하였다.²⁷⁾ 전선에서 부상병을 치료하던 간호사들의 상당수는 전쟁중 부상을 입은 군인들과 결혼을 자원하여 평생 그들의 눈과 귀, 팔과 다리가 되어 산 이들도 많았다고 한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전투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전선동원 비율은 증가되었으리라 판단된다. 특히 대부분 간호사와 통신병 등으로 활동하였던 여성들²⁸⁾은 본 임무 외 인민군의 의식(衣食) 관리 역할도 겸비해야 했다. 전장에서 여성들에게는 최후까지 남아 인민군내 연락과 각종 정보를 관리하며, 자신의 피를 수혈하여 부상자를 치료하고, 비상시는 육탄이 되어 적에게 돌진하는 등 헌신적 활동이 강제되었다. 이와 같은 일화는 각종 영웅수기의 주인공을 통해 선전·선동되었다. 대표적 전선여성으로는 수천 그램의 피를 수혈하여 부상병을 구하여 공화국 영웅

23) 『조선중앙년감(1951-195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2, 467쪽; 『로동신문』, 50/07/02.

24) 지영, 「인민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후방을 지키는 녀성들」, 『조선녀성』, 1950년 7월호, 15쪽.

25) 『로동신문』, 50/07/15.

26) 『조선중앙년감(1951-1952)』, 앞의 책, 468쪽.

27) 『로동신문』, 51/03/09.

28) 『로동신문』, 52/04/08.

칭호를 받은 리순임, 국신복 등이 있다.²⁹⁾ 또한 최고사령부의 통신병으로 교환수였던 리준실과 현영옥, 간호원이었던 조순옥과 김초월, 여성고사총구분대원이었던 사수 박금옥·장탄수 옥녀·탄약수 금화 등이 있다.³⁰⁾

(2) 유격대 형성과 활동

미군과 한국군의 약진으로 인민군이 후퇴하던 시기, 북한은 당과 사회단체 성원들 주도로 인민유격대를 조직했다. 김일성은 1950년 9월 27일 도당 위원장협의회에서 각급 당단체들 주도의 대중적 유격투쟁 조직을 지시한다. 유격대의 임무는 첫째, 적의 지휘부를 기습소탕하고, 둘째, 보급선을 끊으며, 셋째, 적의 통신수단들을 파괴하고, 넷째, 군수창고들과 각종 군사시설 물들에 불을 지르며, 다섯째, 적 후방을 혼란시켜 적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것이었다. 특히 구월산·마식령 산줄기·랑림산 줄기와 연결되는 산지대들을 근거지로 하여, 산악지대 중심으로 유격투쟁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³¹⁾

빨치산 투쟁으로 불려지는 유격대활동은 1950년 10월 중순부터 본격화되어, 10월 30일까지 황해도·강원도·평안남도 등에 근거지를 확보하고 활동지역 5,500km를 확보하였다. 초기에는 부대훈련, 전투원 휴식과 부상자 치료, 식량과 피복 등 후방물자 해결과 전투활동을 위한 제반 준비사업을 하였다. 근거지와 활동지역을 마련한 후에는 본격적인 유격투쟁을 하며 유격대를 확대 강화하였다. 인민유격대는 지방당 조직의 지도하에 지역별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표 1> 참조). 유격대의 주요구성원은 당·정권·사회단체 기관일군들, 내무원과 교원, 노동자와 농민 등이었다.³²⁾

29) 『로동신문』, 52/04/07.

30) 이에 대해서는 『녀전사의 보고』,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1977 참조.

31) 김일성, “일시적인 전략적 후퇴와 당단체들의 과업”, 『김일성저작집』 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132-133쪽.

<표 1> 북한지역 인민유격대 조직통계표

도 별	유격대 이름	조직일	도 별	유격대이름	조직일	
평안남도	녕원인민유격대	10. 24	황해도	구월산 인민유격대	10. 26	
	맹산 "	10. 23		곡산군 동촌면 "	10. 14	
	성천 "	10월 하순		벽성군 지남산 "	10월	
	신양군 지동 "	"		금천군 설화산 "	11. 17	
평안북도	박천 "	10. 23		황주군 국사봉 "	10월 하순	
	정주 "	10. 17		수안군 천곡면 "	"	
	구성군 오봉면 유격대	10. 25		만년로동자유격대	10. 13	
	철산인민유격대	10. 23		곡산 인민유격대	11. 6	
	녕변군 팔원 "	11. 10		강원도	원산지구 "	10. 8
	구장군 룡문 "	10. 21			철원 "	10. 8
함경남도	고원인민유격대	10. 19	린재, 금강 유격대		10. 11	
	금야 "	10. 19	문천 "		10. 13	
	정평 "	10. 21	양구 "		10. 17	
	함주군 "	10. 15	안변 "		10. 15	
	홍남노동자 "	10월말	통천 "		12. 5	
	북청 "	10월 하순	고성 "		10월 중순	
	홍원 "	10. 22	양양, 울산 인민유격대		10. 17	
	신흥 "	10. 28	회양 "		10월	
	단천 "	10. 30	화천 "		10. 25	
	리원 "	10. 31	평강 "		10월 중순	
	풍산 "	10. 29	이천 "		10월	
	장진 "	11. 9	김화 "		"	
	삼수군 삼남면 "	11월 중순	창도군 대성산 유격대		10. 16	
			세포군 유연 "		10. 12	

출처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보관자료 제3406호』
강석희, 앞의 책, 110-112쪽을 재구성.

<표 1>를 보면 북한지역 인민유격대는 평안남도 4개·평안북도 6개·강원도 17개·함경남도 13개·황해도 8개 지역 등 미군과 한국군의 점령지역

32) 강석희,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2』,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83, 105-108쪽.

에서 광범위하게 조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격대는 유리한 산악지대에 근거지를 세우고 식량과 후방물자들을 마련하였다. 대표적 인민유격대인 구월산 인민유격대는 구월산 월정사가 있는 노루메기동에 유격대지휘부를 두고 전체 2,380여 명에 달하는 인민들을 포괄하였다고 한다. 북측 사료에 의하면 이곳은 유격대와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가 운영되었고, 원형방어기지로 조직하여 유격활동의 정치군사적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

한편 유격대는 입대를 원하는 근거지내 인민들과 점령지역에서 유격대 합류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후퇴하는 인민들을 인입하였다. 그리하여 고원인민유격대는 초기 150여명으로 조직되었으나 후에 770여명으로 늘어났다. 유격대는 무장장비가 극히 빈약하고, 대원들의 유격투쟁 경험도 없었으며 다양한 계층과 사상의식수준을 가진 사람들로 꾸려졌다. 이들을 투사로 만들기 위해 북한은 무엇보다 당조직 주도의 사상교양사업에 집중하였다. 교양교재는 김일성의 1950년 6월 26일·7월 8일·10월 11일 방송연설 등이었으며, 정치학습회·강연회·독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³³⁾

유격대원들은 미군과 한국군이 조직했던 치안대나 경찰대, 이동중에 있는 소규모 병력 그리고 군용차와 군수품창고 등을 습격하여 무기를 빼앗아 무장하였다. 또한 수류탄 등 여러 무기들을 수리하거나 자체로 만들어 재래식 무장장비를 갖추었고, 조직 초기 수차례 훈련주간을 세워 대원들에게 유격전과 관련된 군사지식 학습과 군사훈련을 시켰다고 한다. 구체적 훈련 내용은 사격훈련·수류탄던지기·포복전진·신호연락·정찰법·불의습격·산악전·야간전 등 기본적인 전투기술을 습득하게 하였으며, 지휘간부와 유격대핵심을 키우기 위해 군정학교·단기양성소·단기강습소 등을 운영하고 청소년근위대를 조직하였다고 한다.³⁴⁾

북측의 전쟁사 자료에 의하면 인민유격대는 조직 초기에 비해 해산시기 규모가 약 2배에 달했다.³⁵⁾ 그러나 유격대에 합류한 이들은 점령군에 대한

33) 앞의 책, 112-113쪽.

34) 위의 책, 114-116쪽.

적대적 감정을 가진 이들이었으며, 당조직의 지도하에 집중적인 사상교양과 훈련, 집단생활을 통해 복수와 충성을 내면화하게 되었다. 또한 “빈주먹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내고 녀성들과 늙은이들의 힘으로 농사를 짓고 살림집을 꾸렸으며 나무에서 염료를 뽑아 쓰고 풀뿌리로 약을 만들어 쓰는 등 없는 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 것은 찾아내어, 생활을 전투적으로 개척한 유격근거지인민들의 자력갱생의 혁명기풍”³⁶⁾은 현재까지 북한에서 생활의 모범으로 선전되고 있다.

인민군 후퇴시기 미군과 한국군의 점령지역에서 여성들은 각지 여맹주도로 미군과 한국군의 복진을 막기 위한 교량과 철도파괴·통신망 절단·군수창고 습격 등 후방교란사업에 동원되었다. 이 사업은 유격대뿐만 아니라 점령지역의 지하조직망을 통해 진행되기도 하였다.³⁷⁾ 또한 여성들은 유격대원들의 식사와 의복, 건강 등 생활문제 해결에 동원되었다. 구체적으로 함경북도 각 시·군 여맹원들은 유격대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주로 정찰과 간호를 하였으며,³⁸⁾ 황해도 장연군 여맹위원장과 응진군 여맹부위원장을 선두로 한 여성 500여명은 구월산·곡산·가막산·수양산 등 유격대에 참가하여 활동하였다고 한다. 구월산 유격대원 강길순은 결사대원으로서 유격활동을 20여 차례나 참여하였으며, 경기도 빨치산 함순녀는 4명의 대원

35) 앞의 책, 113쪽에서 재인용.

함경남도과 강원도 지역의 유격대 확대 정형표

		함경남도		강원도	
		조직초기	해산시기	조직초기	해산시기
유격대 조직 구성	대 대	14	22	11	15
	중 대	45	74	34	51
	소 대	110	195	76	112
	분 대	160	321	136	179

출처: 함경남도과 강원도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 보관자료.

36) 력사연구소 민속학연구소, 『조국해방전쟁시기 발현된 후방인민들의 혁명적 생활기풍』,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6, 23-24쪽.

37) 『로동신문』, 52/04/07.

38) 『로동신문』, 51/01/15.

과 정찰을 하여 미군 자동차를 전복시키고 미군 5명을 사살하고 그들의 작전계획서와 보고서 입수로 크게 공헌하였다고 한다. 또한 함경북도 경성군 보강면 주남리 여성들은 지역에서 접전을 벌이는 인민군을 위해 밤에 적진지의 우물물을 길러다 주먹밥을 만들었으며, 전투현장을 뚫고 조직적으로 높은 고지까지 식사를 운반하였다고 한다.³⁹⁾

대표적인 유격대 여성영웅으로는 공화국 영웅칭호를 받은 조옥희와 리수덕이 있다. 이 중 조옥희는 벽성군 여맹위원장으로 1951년 3월 8일 북한여성 중 최초로 공화국 영웅칭호를 받았다. 1947년 중앙당학교 출신인 그녀는 전쟁발발 후 군 안의 여맹원들을 동원하여 전호파기·포탄운반·부상병 치료 등을 하였다. 후퇴시기 지남산으로 올라가 어린 자식이 있음에도 유격대 정찰임무를 맡아 활동하였으며 선도적인 투쟁을 하다 한국군에게 잡혀 처형되었다고 선전된다.⁴⁰⁾

4. 기금 및 재정 동원

(1) 군기기금 헌납

1949년 7월 15일 전시동원과 지원조직인 조국보위후원회 결성준비위원회를 조직한 북한은 군기기금 헌납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1949년 10월 인민군대 무장장비 강화를 목적으로 비행기·탱크·함선 등 군기기금을 헌납하는데 대한 조국보위후원회 결정에 의해 시작되었고, 전쟁 발발 후 재정동원을 위해 확대 발전되었다. 북한의 각 사회단체와 공장을 중심으로 《민청호》·《대학생호》·《여성호》·《소년호》 등의 이름을

39) 『로동신문』, 51/03/09.

40) 근로단체출판사, 『신념의 노래』,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1979, 5-24쪽.

가진 비행기·탱크·함선 등의 헌납결의 궤기대회가 진행되었고, 이를 위하여 시간외 노동·폐물이용·각종 자재절약·노동생산능률 제고 등이 추진되었다. 이 운동을 위하여 여맹은 군인가족들을 비롯한 각지 여성들을 적극 동원하였다. 1950년 7월 21일 신의주시에서는 여성 1,300여명이 모여 궤기대회를 하고 7월 30일까지 《녀성호》 비행기 1대 이상을 전선에 보낼 것을 결의한 후, 재봉기·금비녀·시계 등 물품 70여 점과 현금 약 50,000원(당시 화폐, 이하 당시 화폐 기준액)을 그 자리에서 모금하였으며, 강원도지역 여성들은 《녀성호》 비행기·탱크기금으로 9,860,000원을 헌납하였다고 한다.⁴¹⁾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진 이 운동으로 1950년 7월 말까지 헌납된 군기기금 총액은 약 174,497,000원에 달했으며,⁴²⁾ 8월 말까지 헌납된 군기기금 총액은 약 416,355,000원에 달했고, 또한 수많은 알곡과 귀금속 등이 헌납되었다고 한다.⁴³⁾

이 운동은 군대에서도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1951년 5월 3일 김책 서울근위 제4사단 18연대 군무자 명의로 군기기금헌납운동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진행할 것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각 기관과 사회단체들은 전선과 연계된 기금헌납운동을 전개하였다. 함경남도 단천군 노동자·기술자·사무원들은 노동시간 연장과 자재절약 등으로 《단천로동자》호 비행기 1대를 헌납하고, 교통운수부문 노동자들은 1951년 6월 3일까지 약 14,074,000원의 금액을 군기기금으로 헌납하였다. 또한 황해도 봉산군 령천면 경천리(현재 황해북도 봉산군 해서리) 농민들은 1951년 5월 6일 궤기대회를 열고 《경천리》호 비행기 1대 헌납을 결의하였으며, 전국농민들에게 군기기금헌납 운동에 궤기할 것을 호소하는 「전국농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김일성 탄생지인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현재 평양시 만경대구역 만경

41) 허중호, 앞의 책, 260-261쪽.

42) 『로동신문』, 50/08/12.

43) 『조선중앙년감(1951-1952)』, 앞의 책, 468쪽.

대리 일대) 농민들은 비행기 《만경대》호 헌납을 결의하였으며, 5월 26일까지 현금 3,609,000여 원·벼 1,400여 가마니·쌀 567말을 헌납하였다고 한다. 당시 이 운동은 전 사회적으로 진행되어 1951년 6월 10일까지 평안남도 농민들이 바친 군기헌납금은 현금만 163,414,000여 원에 달하였으며 그밖에 수많은 양곡과 귀중품이 헌납되었다고 한다. 특히 후퇴시기에 진행된 황해도 신천군 농민들은 헌신적인 헌납활동을 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다.⁴⁴⁾

전쟁을 경험하며 위기의식이 증대된 기업가와 상인들은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생존을 위해 헌납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1951년 5월 5일 평양시 상인·기업가·시민들의 쫓겨나기를 시작으로, “애국심을 비행기, 땅크, 함선 기금헌납운동에서 다시 한번 표시하라!”는 공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에서 평안북도 신의주시 한 기업가는 거금 3,000만원을 헌납했고, 함경남도 함흥시 기업가·상인들은 비행기 《함흥시 기업가, 상인》호 헌납을 약속하였으며, 평양시 한 기업가는 200만원을 헌납하였다고 한다. 중소기업가들이 생존을 위해 전 재산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 운동은 각 군부대에서도 대대적으로 진행되어 류경수 지휘관 군부대 산하 각 부대에서는 현금 1,700여 만원·서울 105탱크 사단 군무자들은 640여 만원·사회안전성 일군들은 590여 만원을 각각 군기기금으로 헌납하였다고 한다. 재일교포들 또한 ‘조국보위후원회’를 조직하여 1951년 3월 15일~4월 15일까지 규슈지방에서만도 군기기금으로 49만원을 보내왔다고 한다. 북한측의 통계에 의하면 근위 제18연대 군무자들의 호소를 계기로 한달 남짓한 기간인 1951년 6월 10일 현재, 전국적으로 현금 1,539,455,758원과 수많은 귀금속들이 헌납되었다고 한다 (<표 2> 참조).⁴⁵⁾

44) 강석희, 앞의 책, 299-301쪽.

45) 앞의 책, 301-302쪽.

<표 2> 각 지역별 군기금 헌납액(1951년 6월 10일 현재)

(당시 화폐 기준)

지 역	금 액
평 양 시	73,268,180원
평 안 남 도	263,414,449원
평 안 북 도	350,699,400원
함 경 남 도	169,355,107원
함 경 북 도	101,478,558원
황 해 도	158,485,000원
자 강 도	70,459,766원
강 원 도	72,463,465원
기 타	279,831,833원
합 계	1,539,455,758원

출처: 『조선중앙년감(1951-1952)』, 469쪽.

(2) 현물세 완납과 애국미 헌납

농촌에서는 전선 식량조달을 위한 현물세 완납과 애국미 헌납운동이 광범위하게 조직되었다. 계속되는 폭격 속에서 방위체제를 구축하고 폭격을 피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탈곡을 하도록 조직되었다. “소가 없는 조건에서 번갈아 가면서 연자방아를 돌리는 한편 망과 절구 등으로 쌀을 찧어” 1950년 12월말 경 평안남도 각 군과 면에서는 현물세를 완납하였다고 한다.⁴⁶⁾ 또한 평안북도 용천군 양서면 농민들의 애국미 10,600가마니 헌납을 비롯하여, 1951년 2월 중순까지 용천군은 애국미 31,000여 가마니를 헌납하였다고 한다. 모범적으로 애국미 헌납운동에 참여한 평안북도 몇 개 군에서 1951년 3월 중순까지 헌납한 애국미는 용천군 31,000·신의주시 주변 농촌 14,000·철산군 12,000·의주군 10,000·삭주군 10,000·구성군

46) 앞의 책, 304쪽.

8,500·태천군 4,500·선천군 3,700여 가마니 등이라고 한다.⁴⁷⁾

중국군 결합과 전시동원체제 강화과정에서 농민 대상의 애국미 헌납운동은 더욱 강화되었다. 애국미를 헌납하면서 김일성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게 하였으며, 이에 대해 김일성의 이름으로 감사편지를 보내는 등 이벤트도 진행하였다. 점령시기 전쟁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열성적인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다.⁴⁸⁾ 예를 들어 한 여성농민은 “원수를 천백배로 복수할 일념으로 1952년도 증산투쟁에서 높은 다수확을 거두고, 벼 80가마니를 헌납한 것”을 비롯하여, 평안남도에서만도 1953년 2월말 현재 6,390가마니를 전선원호미로 헌납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북한 전 지역에서 1953년 4월 30일 현재 헌납된 전선원호미는 3,028t 50kg에 달했다고 한다.⁴⁹⁾

(3) 조국보위복권 구매

조국보위후원회 중앙위원회가 군기기금헌납을 더 많이 조성하기 위해 조국보위복권 발행을 내각에 제의하여, 1951년 6월 14일 내각결정 제297호 「조국보위복권발행에 관하여」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1951년 10월 5일부터 전 지역에 조국보위후원회 중앙위원회 명의로 일제히 복권이 발행되었다.⁵⁰⁾ 그러나 복권발행 이전 각 기관과 사회단체는 복권구매 저축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다. 실례로 함경남도 신흥군 동상면 옥간리 농민들은 인민생활안정 저축운동 궤기대회를 개최하고, 생활비 절약으로 저축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한다. 궤기대회는 한 농민의 결의 발표와 저축액을 칭송하며, 집단적 결의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궤기대회는 마을농민들을 의무적으로 조직동원하여 각종 동원사업에 참여시키기

47) 『로동신문』, 51/03/21.

48) 박태호,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223쪽.

49) 『조선중앙년감(195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3, 557쪽.

50) 『로동신문』, 51/10/06.

위한 것이었다. 즉 강제된 자발성을 정서적 호소와 연계시킨 것이다. 그리하여 이 마을에서는 9월 말까지 20만원 저금을 결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복권구매를 위한 사전궐기대회는 북한 대부분 지역과 공장 등에서 진행되었다.⁵¹⁾

남편과 오빠를 전선에 보낸 평안북도 선천군 남면 거포리(현재 석화리)의 한 여성은 “우리가 사는 한장 한장의 복권은 원수들의 가슴팍에 퍼붓는 복수의 탄환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오빠에게 한알의 탄환이라도 더 보내기 위하여 여유금액과 앞으로 소비절약에서 얻어지는 돈으로써 조국보위복권을 한장이라도 더 많이 구입하겠다”고 결의하며 이 사업에 참여했다고 한다. 또한 황해도 황주군 인교면 룡산리(현재 황해북도 연탄군 룡산리)의 한 여성농민은 “원수들에 의하여 학살된 남편의 원수를 갚는 마음으로 째짤이 무명을 짜서 모은 돈 2만원을 조국보위복권을 구입하는데 바쳤으며 이 모범을 따라 룡산리 농민들은 40만원의 복권을 구입”하였다고 한다.⁵²⁾ 전쟁을 경험한 이들은 복수를 하겠다는 원시적인 증오감⁵³⁾과 정권의 ‘복수심과 애국심의 일체’라는 논리 하에 내뿜으로 기금을 헌납하였다.

이 운동 역시 각종 궐기대회와 결의 이벤트를 통해 전 지역·마을·직장 단위에서 진행되었으며, 재원확보 방법은 시간외 노동·폐품회수·소비절약·재산헌납·각종 소지품과 생필품판매 등이었다.⁵⁴⁾ 이렇듯 집중적이고 조직적인 동원으로 복권발행 후 10일만인 1951년 10월 15일 현재 목표액 5억 원을 1억원이나 초과하여 6억원에 달하는 복권이 구매되었다고 한다.⁵⁵⁾ 북한의 전쟁관련 문헌은 이 운동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51) 『로동신문』, 51/09/21.

52) 박태호, 앞의 책, 226쪽.

53) 『로동신문』, 51/10/06; 『로동신문』, 51/10/08.

54) 『로동신문』, 51/10/09; 『로동신문』, 51/10/13.

55) 『로동신문』, 51/10/19.

조국보위복권구메사업은 전시 어려운 조건에서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전시 국가재정을 공고히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히 우리 인민은 이 사업을 통하여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다시 한번 시위하였다.⁵⁶⁾

(4) 기금마련 방법

북한주민들의 기금마련 방법은 증산과 시간외 노동, 파철·폐품·유희자재·곡식이삭 수집·약초와 나물캐기 등 출혈노동, 금품·귀중품·재산 헌납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자강도내 광산노동자들은 시간외 노동으로 받아야 할 55,000여 원을 군기헌납금으로 바쳤으며, 함경남도 단천군 노동자·기술자·사무원들은 증산투쟁과 각종 수집 등에서 얻은 보수로 《단천로동자호》 비행기 1대를 헌납했다고 한다. 농촌여성들은 “전선에서 싸우는 남편들과 아들, 오빠들을 대신하여 전시 알곡증산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방공호의 등잔불 밑에서 밤을 새워가며 무명을 생산하여 거기에서 얻은 돈”을 비행기·탱크 헌납금으로 바쳤다고 한다. 평안남도 강서군 내 여성들은 《녀성호》 비행기 기금마련을 위해 무명생산운동을 하여 약 200만원을 바쳤으며, 황해도 여성들은 무명생산 수입으로 비행기 《재령녀성호》와 《어머니호》를 헌납하였다고 한다. 각지 농촌여성들은 무명생산과 짚제품 생산 등 부업생산에서 얻은 금액을 헌납금으로 나라에 바치었으며, 학생들은 공장·기업소·농촌에 나가 과외노동을 한 대가를 군기헌납금으로 나라에 바치었다고 한다.⁵⁷⁾ 또한 1950년 7월 신의주에서는 여성 1,300여명이 쫓겨나기를 하고 비행기 《녀성호》 1대 이상 전선에 보낼 것을 결의하여, 즉석에서 재봉침·금비녀·시계 등 귀중품 70여 점과 현금 5만여 원을

56) 박태호, 앞의 책, 227쪽.

57) 력사연구소 민속학연구소, 앞의 책, 130쪽.

헌납하였다고 한다. 귀중품과 생활품 헌납은 여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간직했던 것을 바치는 것이었다. 함경남도에서는 북청군 여성들이 귀금속 2,292점, 신흥군 여성들이 2,306점, 혜산군 여성들이 재봉기 23대를 헌납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귀금속과 생활품 헌납은 확대되어 1951년 6월 10일까지 물품 33,640여 점이 헌납되었다고 한다.⁵⁸⁾

전시 내핍생활 속에서 재정확보를 위한 여성활동은 절약강화로 두드러졌다. 여맹주도로 전시에 존재하기 어려운 '식량낭비 현상'에 대한 대중적 비판을 하며 절약투쟁이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양덕군 고진리 여성들은 생활합리화라는 논리 하에 관혼상제시 떡·술·옛 마련 등을 근절하여 절약한 양곡 수십 가마니를 전선원호미로 바쳤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이 여성들로 구성된 농민들은 '식량절약은 부업에서'라는 여맹의 구호 하에 매 가정에서 구체적인 소비절약계획을 세워 한 사람당 매끼 쌀 15g을 절약하도록 하였으며, 양곡매매로 생필품을 구입하던 것을 부업생산에서 얻은 부수입으로 해결하도록 하여 상당한 식량을 전선원호미로 바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1953년 4월 30일 현재 각지에서 헌납된 전선원호미는 약 22만 가마니였다고 한다.⁵⁹⁾

5. 전선 및 피해자 원호

김일성의 방송연설 이후 당시 여맹위원장 박정애는 “고도의 긴장성과 경각성 밑에 우리 후방을 반석같이 견고하게 수호하라”며 전체 여성들의 전선동원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58) 위의 책, 132쪽.

59) 위의 책, 133-134쪽.

로동 여성들과 농민 여성들은 정의의 전쟁에 쫓겨난 인민군대에게 군수품과 식량과 의복과 약품들을 보내기 위하여 증산투쟁을 더 일층 가감히 전개하라! 또한 여성 로력을 광범히 한 직장에 진출케 함으로써 각 부문에서 남자들이 하던 사업을 우리 여성들의 손으로써 충당토록 하는 동시에 여성들은 출신 부상병들의 간호사업과 인민군대에게 드리는 따뜻한 위문편지조직과 그 가족 원호사업에 온갖 열성을 다하라! …… 조국의 완전통일을 향하여 전체 조선여성들에게 맡겨진 위대하고도 성스러운 과업을 지니고 나아가는 우리 앞에는 반드시 빛나는 승리가 있을 뿐이다. 조국의 완전통일과 여성들의 자유와 권리와 후손들의 행복을 위하여 앞으로 앞으로 용감히 전진하자!⁶⁰⁾

후퇴와 수복 이후 1951년 8월 15일 김일성은 여맹간부들과의 담화에서 여맹 강화를 통한 전선원호사업의 조직적 진행을 제기한다. 이 담화에서 여맹 전선원호사업의 구체적 과제로 첫째, 산나물 채취와 건조로 인민군의 부식물 문제와 수송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 둘째, 여성들을 동원하여 군인들이 많이 오가는 도로 주변에 쉼터를 마련하여 그들의 식사를 보장하고 의복도 수리해주며 항공감시도 해줄 것, 셋째, 파괴된 도로와 교량을 복구할 것, 넷째, 위문품과 위문편지를 더 많이 보낼 것, 다섯째, 무명생산운동으로 의류문제를 해결할 것, 여섯째, 전쟁고아 양육사업을 잘 할 것, 일곱째, 여맹과 사상교양사업 강화 등이다.⁶¹⁾

60) 박정애, 「전조선여성들은 인민의 원수를 소탕하는 정의의 전쟁에 총력기하자」, 『조선여성』, 1950년 7월호, 11쪽.

61) 김일성, 「전선원호사업은 너맹원들의 중요한 임무」, 『김일성저작집』 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445-452쪽. 이 담화에서 김일성은 “전선원호사업을 잘하는 것은 싸움터에 남편과 아들딸들을 내보낸 우리 여성들의 숭고한 의무”라고 강조하며, “한 가정의 경우를 놓고 보아도 남편은 남편으로서 할 일이 있고 안해는 안해로서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전쟁에서도 남자들은 남자로서 할 일이 있고 여성들은 여성으로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후방의 주인은 여성들이며 전선원호사업은 응당 여성들이 해야 할 일”임을 강조하였다.

남성부재 속에서 여성들은 광범위하게 사회로 진출하였으며 또한 동원되어 생산과 사회유지 활동을 해야 했다. 또한 성역할론에 따라 모든 여성들에게 전선원호라는 일차적 활동이 강제되었다. 후방의 여성에게 강제되었던 전선원호 사업은 첫째, 인민군에게 생필품과 부식물 중심의 위문품과 위문편지 보내기, 둘째, 인민군과 유격대활동을 원호하여 그들의 식사와 의류문제 등을 해결하고 휴식과 간호를 책임지기, 셋째, 인민군 가족들과 전쟁고아를 보살펴주기 등이었다.

(1) 위문 및 전선원호

전쟁 발발 후 김일성이 후방에서 인민군 생활필수품과 구호사업을 광범위하게 조직할 것을 지시⁶²⁾한 후 각 사회단체와 기관은 인민군 원호사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중 위문품과 위문편지 보내기는 여성을 중심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던 동원사업이었다. 조직적 활동으로 1950년 6월 30일 현재 평양시 각 구역 인민들이 위문품 10만여 점을 전선에 보냈으며, 황해도 인민들은 7월 7일 현재 위문품 244,000여 점과 위문편지 114,000여 통을 인민군대에 보냈다고 한다. 특히 이 사업은 각지 여맹 주도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전쟁개시 불과 2달 동안 각종 전선위문품 80만 2,660점과 부식물 940t 740kg이 여성들의 “애국적 노력”에 의해 마련되었다고 한다.⁶³⁾

이 사업은 전시 일상 동원사업으로 평안남도 각지 인민들은 1951년 1월 한달 동안 위문품 8만 5,400여 점과 위문편지 6,400여 통을 인민군에게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함경북도 각지 농민들은 1951년 상반기 동안 일용품 20,0679점·섬유제품 2,994점·쌀 2,235말·위문편지 3만여 통과 축기 29

62) 인민군들의 생활을 위한 필수품과 구호사업에 대한 김일성의 지시는 『조선여성』, 1950년 7월호, 5쪽.

63) 허종호, 앞의 책, 263-264쪽.

폭·많은 양의 고기를 인민군에게 보냈다고 한다. 강원도 하천군 여맹원들은 부락에 있는 재봉틀을 모아놓고 밤낮으로 일하여 덧저고리 3,490벌·버선 2,180여 켤레·장갑 2,860여 켤레를 만들어 전선에 보냈으며, 떡 300포대·엿 55포대·된장 321독·미숫가루·깨기름·고추기름 등 수많은 식료품을 보냈다고 한다. 자강도내 각지 여성들도 1951년 1월 10일 현재 계란 5,700개·떡 204말·엿과 꿀 3,205근·8,000여 개의 손수건과 5만 4,000여 켤레의 장갑 및 덧버선을 전선에 보냈으며, 인민군을 찬양하며 감사와 축하의 뜻을 표시한 글을 새긴 37폭의 축기를 보냈다고 한다.⁶⁴⁾ 이 사업은 각 공장·기업소 등에서도 일상적이고 대대적으로 조직되었다. 공장 여맹원들은 담배쌈지 또는 후방인민들의 활동을 담은 사진첩 등을 만들어 보냈다. 한 공장 여맹원들은 200여 통에 달하는 위문편지·양말·비누 등을 인민군에게 보냈다고 한다.⁶⁵⁾

김일성이 여맹간부들과 한 담화 이후 전선원호사업은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전선지역 여성들의 전선원호사업은 중요한 과제였다. 그리하여 강원도 고성군 여성들은 월비산과 351고지에서 전투하는 인민군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전선원호사업을 벌였으며, 1951년 가을 온정리를 비롯한 고성군 인민들은 ‘한발의 포탄, 한알의 쌀이라도 더 많이 전선에 보내자!’라는 기치하에 연 28,860여 명이 동원되어 폭탄과 총알이 빗발치는 전투현장을 뚫고 온정령을 넘어 화선까지 70여 리의 길을 왕래하면서 식량과 포탄을 운반하였다고 한다. 또한 고성군 수동면 정월리(현재 고성군 월비산리) 여맹위원장을 비롯한 이곳 여성들은 1952년 7월 치열한 월비산 전투 때 탄알이 빗발치듯하는 가운데서 16일간에 걸쳐 연 4,650명이나 동원되어 포탄을 고지에 운반하였으며 부상병들을 후송하였다고 한다.⁶⁶⁾ 이에 대하여 북한의 전쟁사를 다룬 문헌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64) 강석희, 앞의 책, 304-305쪽.

65) 『로동신문』, 51/08/06.

66) 『로동신문』, 53/03/13.

고성군을 중심으로 한 남강마을과 배촌마을 녀성들은 351고지와 1211고지를 영웅적으로 싸우는 인민군용사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전선원호사업을 힘있게 벌리었다. 이곳 녀성들은 고지에서 인민군용사들의 포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면 깊은 밤이라도 무거운 포탄상자와 탄약상자를 이고 지고 고지에 올랐다. 그들은 또한 전선의 고지와 남강마을을 연결하는 유일한 수송로인 남강다리를 지키기 위한 피어린 투쟁에서도 무비의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였다. 적기의 야수적 폭격에 의하여 하루에도 몇 차례씩 끊어진 다리를 복구하기 위하여 남강마을 인민들은 소용돌이치는 강물 속에 뛰어들어가 용감히 싸웠다. 1951년 여름에 있는 큰 장마로 남강물이 넘쳐나 수송로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자 남강마을 녀성들은 오직 전쟁의 승리를 바라는 한마음으로부터 집에서 쓰던 당반넝, 널마루, 이불장, 집기 등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떼를 무어가지고 사품치는 강물을 헤치면서 싸우는 고지의 전선용사들에게 탄약과 식량을 운반하였다.⁶⁷⁾

이 사업도 기념일이나 쉼기대회 등 이벤트와 함께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함경남도 각 계층 인민들은 1952년 《미제 반대투쟁의 날》을 앞두고 두 달 동안 금액으로 3,520,000만원에 달하는 위문품을 인민군에게 보냈다고 한다. 특히 이곳 여성들은 1952년 4월과 5월에 걸쳐 500여 마리의 돼지와 많은 부식물을 인민군에게 보냈으며, 홍남시 근로자들은 위문품 123,000여 점을 전선에 보냈다고 하다. 이 사업은 각종 기념일을 계기로 전 단위에서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지역·기관·단체별 전선원호단들이 조직되어 전선 각지를 돌면서 인민군들을 위로했으며, “싸우는 후방인민들의 투쟁모습을 전선에 소개 선전함으로써 그들을 고무격려”하였다고 한다.⁶⁸⁾

67) 박태호, 앞의 책, 221쪽.

68) 박태호, 앞의 책, 227쪽.

(2) 인민군 및 유격대 원호

전시 인민군과 유격대원을 원호하는 것은 북한여성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었다.⁶⁹⁾ 전시 동원체제에 의해 진행된 그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선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원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동강운수사업소의 한 여성은 인민군의 도하를 엄호하던 포병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보고 탄환이 빗발치는 속을 뚫고 포진지에 달려가 포병들을 도와 인민군의 도하를 가능하게 했다고 한다. 또한 여성들은 생필품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민군의 식사를 책임져야 했다. 월비산 탈환전투에서 마을여성과 노인들은 미군기가 마을 상공을 떠돌면서 폭격과 기관총사격을 퍼붓는 상황에서, 땅 밑으로 약 10미터 가량 되게 연도(연기가 나가는 길)를 파고 연기와 불꽃을 지하로 배출하여 밥을 지어, “포연탄 우 속을 헤치고 앞선 사람이 쓰러지면 뒤에 선 사람이 다시 그것을 받아서 이고 지고하면서” 인민군에게 식사를 날랐다고 한다. 또한 1951년 여름 30년만의 대홍수로 전선으로 통하는 길이 끊어졌던 시기에 1211고지 전투를 원호하던 그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은 끼니를 거르면서도 종자감자까지 삶아 전투현장을 뚫고 고지 인민군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한다. 월비산전투를 지원한 고성군 여성들 중 29명으로 조직된 피복수선반 여성들은 재봉틀을 머리에 이고 전투장으로 가서, 전투현장에서 전투원들의 군복을 수리하여 1주일 사이 군복 2,000여벌을 수리했다고 한다.⁷⁰⁾

둘째, 탄약과 후방물자를 전선으로 수송하는 것과 부상병 구원이다. 전선 지역 여성들은 “마을을 원썬들의 침해로부터 시수하자!”라는 구호 하에 전선을 뚫고 탄약과 후방물자를 날라야 했으며 이러한 활동은 주로 한 밤중

69) 『로동신문』, 51/03/09.

70) 력사연구소 민속학연구실, 앞의 책, 137-139쪽.

에 이루어졌고 부상자구호도 해야 했다. 후퇴시기 자강도 고평군 창평동의 한 어머니는 중상을 입은 인민군을 산골에 은신시켜놓고 희생적으로 그를 구원하였다고 한다. 순천군 천두산 불사조라고 불리운 백채옥 어머니는 천두산에 부상병을 은신시켜놓고 온갖 열성과 희생을 발휘하여 간호하였다고 한다. 그녀는 식량을 얻으러 마을에 내려갔다가 점령군에게 체포되어 모진 고문과 행패를 당했으나 끝내 굴하지 않고, 반주검이 된 상태에서 부상병을 살리기 위하여 다시 산으로 들어가 끝내 부상병을 구원했다고 한다. 중상의 부상병을 후송하던 중 부상자가 심한 갈증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것을 본 한 여성은 “내가 이 동무의 친누이라면 피 흘리고 돌아온 동생을 이대로 후송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에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위급 상황을 면하게 했다고 한다.⁷¹⁾

셋째, 어려운 조건에서의 인민군의 의식(衣食) 보장과 상처치료이다. 구체적으로 후퇴시기 삭주군 대잔면 남장리 여성들은 추수 때가 되었으나 논에서 쉽게 추수할 수 없는 조건에서, 마을의 모든 소를 동원하여 소바리와 등짐으로 벼를 낫았으며, 자연 은폐지에서 공동으로 마당질을 하였다. 그리고 마을의 모든 방아·절구·맷돌을 동원하여 밤새워 쌀을 찧어 밥을 지었다고 한다. 그들은 밥도 다섯 집을 한 개조로 편성하여 지었으며, 역할을 나누어 쌀 씻는 일·쌀을 안치고 밥을 푸는 일·불 때는 일·주먹밥 만드는 일을 하여 인민군 식사를 보장했다고 한다. 또한 반찬마련을 위해 부업 경리를 운영하고, 집단적인 산나물캐기운동을 벌였다고 한다. 삼수군 여성들은 황무지를 공동개간하여 식량을 생산하였으며, 부업농장과 목장을 집단적으로 운영하여 수많은 돼지와 닭 그리고 부식물들을 전선에 보냈다. 신흥군 동상면 여맹은 78명의 여맹원으로 다섯 조의 산채캐기조를 조직하고, 김매기 도중 짬을 내어 많은 산나물을 캐서 전선에 보냈다고 한다. 군 보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밤새워 무명을 생산하고, 갈매나무열매로 보호색 물을 들여 군복을 지었으며, 이불과 자신의

71) 위의 책, 139-142쪽.

의복으로 솜옷을 지어 전선으로 보냈다고 한다. 강원도 화천군 인민들은 자기의 이불솜과 의복으로 덧저고리 3,490점을 비롯하여 모자 286개·장갑 264켤레를 만들어 인민군에게 보냈으며, 함경북도 경흥군 인민들은 도라지·고사리 등 산채를 비롯하여 건채 851톤을 보냈다고 한다. 또한 화천군 여성들은 장 331독·김치 700여독·깨기름·고춧가루 기타 부식물을, 김화군 원북면 신풍리 여성들은 많은 콩나물을 길러 보냈다고 한다.⁷²⁾

또한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여러 민간요법으로 부상병을 치료해야 했다. 실례로 전선이 가까운 아호비령 인민들은 송진·익모초·파리·류황 등을 혼합해 만든 고약을 주머니에 일상적으로 넣고 다니면서 부상병 상처를 치료했다고 한다. 그리고 김화군 원북면 신풍리 여맹원들은 참기름·잣진·황밀에 머리칼을 태운 재를 섞어 황랍고로 만들어 부상병 상처에 피고름을 뽑아내고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였으며, 출혈이 심한 부상병은 느릅나무 껍질로 가루를 내어 지혈제로 대응했다고 한다. 후퇴시기 한 어머니는 인민군 부상병을 산 속 굴에 은폐시키고 운모(돌비늘) 나무 그늘 밑에 돌은 마밭(말불버섯)을 뜯어, 상처에 발라주면서 38일 동안이나 간호하여 상처를 아물게 하였다고 한다. 또한 동상입은 부상병의 언 손이나 발을 찬 콩자루 속에 넣어 언 독을 뽑게 하였으며, 가독나무잎에 꿀을 발라 상처에 붙여주거나 곰기름을 데워 동상이 심한 곳에 발라주었다고 한다.⁷³⁾

(3) 군인가족과 전쟁고아 원호

중국군의 참전으로 북한지역을 수복한 상황에서 여맹의 또 다른 핵심과업은 인민군 가족과 전쟁고아 원호사업이었다. 인민군 가족의 농사를 도와

72) 앞의 책, 134-144쪽.

73) 앞의 책, 136쪽.

주고,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후원물자와 후원금을 모금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 자강도 강계시에서는 1952년 《미제반대투쟁의 날》을 전후하여 노동자·사무원·학생 등 1,200여명으로 노력협조대를 조직하여 시 주변 애국열사유가족 및 인민군대 후방가족의 모내기와 김매기를 도와주었다고 한다. 함경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800여명이 동원되어 53세대에 달하는 애국열사 유가족의 농사와 13세대의 주택문제를 해결해주고, 영예군인학교 창설·학교건설에 참여·개교 축하선물 기증을 하였다고 한다. 평양시 여성들은 1952년 첫 3개월 동안 인민군 후방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필수품 1,300여 점과 식량을 절약하여 양곡 82말을 원호하였다고 한다. 평안남도는 1952년 4/4분기에만도 양곡 30,622kg과 옷·이부자리를 비롯한 생활필수품 14,158점, 당시 화폐로 현금 181,039원을 모아 인민군 후방가족 및 애국열사 유가족들을 원호하였다고 한다. 함경북도에서는 1952년 한해 동안 이들을 위하여 876,000여 원의 후원금과 108세대에 300여 점의 위문품 보냈다고 한다.⁷⁴⁾

이러한 활동은 각 지역별로 조직된 전재민구호위원회 주도로 이루어졌다. 강원도 전재민구호위원회에서는 1952년 10월 25일 현재 681,000여 점에 달하는 각종 구호물자를 보내 전재민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며, 평안남도에서는 인민대표단을 조직하여 강원도 전재민들을 위안하고 무명 1,750미터·옷감 1,226벌·모직물 886미터와 기타 수많은 옷·신발 등 구호물자를 보냈다고 한다.⁷⁵⁾ 평안남도 덕천군 립하리 여맹원들은 생필품과 나무, 그리고 각종 노력으로 인민군 가족을 원호하였다고 한다.⁷⁶⁾ 원산시를 비롯해 강원도 문천·안변·통천 등 각지 인민들은 1952년 봄에만도 231t 900kg의 양곡을 전재민에게 대여하였다고 한다. 강원도 전재민에 대한 원조 양곡만 800여t에 달했다고 한다. 황해도 농민들은 1952년 3월 한달 동안 수천 톤의 절약

74) 박태호, 앞의 책, 214-215쪽.

75) 위의 책, 215쪽.

76) 『로동신문』, 52/04/13.

미로 전재민과 빈농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함경북도 명천군 농민들은 1952년 4월 중순까지 500여 호의 전재민들에게 4,000여 말의 양곡을 나누어주었으며, 회령군 농민들은 5,100여 말, 길주군 농민들은 2,700여 말을 각각 전재민에게 전달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1952년 4월 14일까지 함경북도 내 각지 농민들은 3만 7,000여 말의 양곡을 전재민에게 주었다고 한다. 이 활동 역시 각 분야에서 진행되었다.⁷⁷⁾

예를 들어 1952년 3월 전국철도일군 열성자대회에서 채택된 《전국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는 3월부터 12월말까지 매일 1일분의 식량을 절약하여 얻은 양곡 18,000말을 재난당한 전재민들과 수재·한재로 인한 재해농민들을 원호하기 위하여 국가에 바칠 것을 결의하고 대중적 궤기를 호소하였고,⁷⁸⁾ 각지 재해농민들은 증산궤기대회를 열고 전체 노동자·기술자·사무원들에게 감사하는 행사를 벌였다고 한다.⁷⁹⁾

대대적인 폭격 등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어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쟁고아 원호문제가 중요한 여맹의 업무가 되었다. 전쟁고아 원호는 여맹 주도 하에 애육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보살피는 것과 이들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고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라! 고아들을 양육하는 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숭고한 애국심의 표현이다. 고아들을 양육함에 있어 솔선 참가하라!”⁸⁰⁾고 호소하였으며 여맹은 이 사업을 조직하였다. 각 지역 여맹 주최로 전쟁고아 양육에 대한 경험교환회가 진행되었다. 한 경험교환회에서 여성당원 손보배는 “우리는 죽어가는 순간까지 눈을 감지 못했을 이 애들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이들을 친혈육처럼 길러줍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장래 훌륭한 일꾼이 되어 조국에 이바지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77) 박태호, 앞의 책, 215-216쪽.

78) 『로동신문』, 52/03/15.

79) 『로동신문』, 52/04/17.

80) 『로동신문』, 51/03/09.

또한 조국해방전쟁에 있어서 우리 여성들이 하여야 할 의무이며 우리들을 일제 기반으로부터 해방하여준 소련 인민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의 하나일 것”이라며 그 의의를 밝히기도 했다.⁸¹⁾

구체적으로 강원도에서는 1952년 여성 461명이 전쟁고아 703명을 맡아 길렀으며, 전국적으로 여성 4,500명 이상이 전쟁고아 5,200명 이상을 양육하였다고 한다. 김선희는 전쟁고아를 8명이나 양육하여 널리 칭송되기도 하였다.⁸²⁾ 또한 각지 여성들은 이불·솜버선·신발·의복을 비롯한 각종 생활필수품들을 애육원에 보냈다. 평양시 여성들은 1951년 10월초 신발·이불·옷을 비롯하여 각종 생필품 700여 점을 전쟁고아에게 보내는 등 평안북도 인민들은 강원도 내 전쟁고아들에게 솜옷 1,600벌과 수많은 위문품을 보냈다고 한다. 황해도 여성들은 1952년 3. 8절을 앞두고 애국열사유자녀 조속회 보육원에 부설목장설치기금으로 20만원 보냈다고 한다.⁸³⁾

6. 결 론

2005년 올해는 광복과 동시에 분단 6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한반도 분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냉전질서를 그대로 투영하였다. 그리고 20세기 말 세계적인 탈냉전 흐름과 1987년 이후 남북교류 증대 및 김대중 정부 이후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의 평화화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위협과 안보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남북한 국민들의 안보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사는 6·25 전쟁이다. 분단 60년 역사 속에서 6·25전쟁의 경험은 남북한 국민의 집단

81) 『로동신문』, 51/08/17.

82) 『로동신문』, 53/03/05.

83) 박태호, 앞의 책, 218-219쪽.

기억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세계사적이며 국내적인 상황에 따라 수위와 폭에 변화는 있었지만 전쟁중 발생한 사회구성원간 이념대립과 갈등, 남한의 반공의식과 북한의 반미의식, 남북한 정권의 통일의지와 갈등 등이 아직까지 남북한 사회에서 반복 및 재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휴전 50년을 넘어 세기가 바뀌었음에도 남북한 국민은 여전히 안보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문사회연구회 소관 4개 국책연구기관이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동조사에 따르면, 2000년 남북 정상회담으로 대표되는 대북 포용정책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998년 ‘북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는 지원대상 12.4%, 협력대상 24.8%, 경쟁대상 3.3%, 경계대상 40.6%, 적대대상 13.8%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긍정적 인식(지원 및 협력대상)이 37.2%인 반면, 부정적 인식(경계 및 적대대상)이 54.4%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질문에 대한 2003년도 조사결과는 지원대상 15.6%, 협력대상 36.9%, 경쟁대상 4.3%, 경계대상 27.7%, 적대대상 12.0%로 나타났다. 긍정적 인식이 52.5%인 반면, 부정적 인식은 39.7%로 나타났다.⁸⁴⁾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한 국민들의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전환은 세계적 탈냉전 흐름에 의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독일통일,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와 1990년대 중반부터 노골화된 북한의 식량난·경제위기 등으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전보다 상당히 완화되었다. 이러한 인식전환은 중국 내 거주하는 탈북자와 국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정권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1998년 여론조사 결과는 매우 크다 12.2%, 다소 크다 45.5%, 별로 없다 31.2%, 거의 없

84) 최진욱 외,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3, 7-8쪽.

다 7.7%였는데 반해, 2003년도 조사결과는 매우 크다 17.9%, 다소 크다 40.7%, 별로 없다 23.9%, 거의 없다 14.9%로 조사되었다. 무력도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답변이 57.7% 대 58.6%,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38.9% 대 38.8%로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정권의 무력도발 위험 인식을 낮추지는 못했다.⁸⁵⁾

이 조사결과는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한 다른 항목 조사와는 매우 배치되는 결과로,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안보정세 관련해서는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안보불안감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미국의 북한정권 압박정책과 군대(軍隊)를 앞세운 '선군정치'로 체제보장과 유지에 주력하는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이 놓여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요인은 남북관계 및 국제관계의 긴장 국면마다 새롭게 재구성되는 남북한 국민의 6·25전쟁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한반도의 트라우마(trauma)이다. 한반도의 트라우마는 전방에서 죽어간 군인이나 인민군에 의해 재생산되지 않는다. 오히려 후방에서 그 죽음을 목도하고 상처입고 다시 삶을 조직하였던 남북한 국민들에 의해 끊임없이 재생산되었다. 그러므로 전쟁의 기억과 상처의 재생산은 전방보다 후방에서 생존하고 삶을 이끌었던 보통 국민들에 의해 더 생생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후방의 중요성을 주목한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던 6·25전쟁 시기 북한정권의 후방정책을 살펴보았다. 특히 1949년부터 본격화된 북한정권의 전시 동원사업과 후방동원의 주역이 되어야 했던 북한여성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었다.

2장에서는 6·25전쟁시기 북한의 전시동원체제 형성과정과 양상을 다루었다. 북한정권은 1949년부터 조국보위후원회 등 각종 동원조직과 동원체제를 형성하여 6·25전쟁 발발이후 급속하게 전시동원체제를 구축하였다.

3장에서는 전선 및 유격대 동원사업을 다루었다. 북한정권은 김일성의

85) 앞의 책, 8-9쪽.

방송연설을 시작으로 각종 대중집회와 모임을 통해 전선참여 운동을 조직하였고 주민들을 전방으로 동원하였다. 또한 미군과 한국군의 약진으로 인민군이 후퇴하던 시기, 김일성의 지시로 노동당과 사회단체 간부들은 인민유격대를 조직했다. 유격대의 임무는 첫째, 적의 지휘부를 기습소탕하고, 둘째, 보급선을 끊으며, 셋째, 적의 통신수단들을 파괴하고, 넷째, 군수창고들과 각종 군사시설물들에 불을 지르며, 다섯째, 적 후방을 혼란시켜 적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것이었다. 인민유격대는 지방당 조직의 지도하에 지역별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4장에서는 전쟁 기금 및 재정 동원사업을 다루었다. 1949년 7월 15일 전시동원과 지원조직인 조국보위후원회 결성준비위원회를 조직한 북한정권은 군기기금 헌납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1949년 10월 인민군대 무장장비 강화를 목적으로 비행기·탱크·함선 등 군기기금을 헌납하는데 대한 조국보위후원회 결정에 의해 시작되었고, 전쟁발발 후 재정동원을 위해 확대 발전되었다. 농촌에서는 전선 식량조달을 위한 현물세 완납과 애국미 헌납운동이 광범위하게 조직되었다.

또한 조국보위후원회 중앙위원회가 군기기금헌납을 더 많이 조성하기 위해 조국보위복권 발행을 내각에 제의한 후, 1951년 10월 5일부터 전 지역에 조국보위후원회 중앙위원회 명의로 일제히 복권이 발행되었다. 그러나 복권발행 이전부터 북한의 각종 기관과 사회단체는 복권구매 저축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다. 후방의 북한주민들은 증산과 시간외 노동, 파철·폐품·유휴자재·곡식이삭 수집·약초와 나물캐기 등 출혈노동, 금품·귀중품·재산 헌납 등으로 전시 재정사업에 동원되었다.

5장에서는 전선 및 전쟁 피해자 원호를 위한 후방 동원사업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위문 및 전선원호, 인민군 및 유격대 원호, 군인가족과 전쟁고아 원호 사업이 진행되었다. 특히 남성부재 속에서 여성들은 광범위하게 사회로 진출하였거나 동원되어 생산과 사회유지 활동을 했다. 또한 성역할론에 따라 모든 여성들에겐 전선원호라는 일차적 활동이 강제되었다. 전선

및 전쟁 피해자 원호사업은 특히 후방의 여성에게 강제되었다. 인민군에게 생필품과 부식물 중심의 위문품과 위문편지 보내기, 인민군과 유격대활동을 원호하여 그들의 식사와 의류문제 등을 해결하고 휴식과 간호를 책임지기, 인민군 가족들과 전쟁고아를 보살펴주기 등 전선원호 사업은 전시 정권에 의해 조직된 북한여성들의 1차 과제였다.

본 논문은 6·25전쟁시기 북한의 후방정책인 전시동원사업을 최대한 미시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더욱 실증적인 연구를 위해 구술사와 더욱 객관적이고 풍부한 자료를 보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① 기존 북한연구 범주에서 다루어졌던 6·25전쟁 연구의 장을 넓혔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② 흑역 향후 전개될지도 모를 전쟁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북한의 후방정책을 역사적으로 점검해본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③ 그동안 전쟁이야기에서 쉽게 간과되었고 생략되었던 여성의 전쟁사 연구에 기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5. 9. 23, 심사완료일 : 2005. 11. 18)

주제어 : 6·25전쟁, 북한정권의 후방정책, 전선 및 유격대 동원사업, 전쟁 기금 및 재정 동원사업, 전선 및 전쟁 피해자 원호사업

<ABSTRACT>

A Study on the Rear Policy of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 Focusing on Analysis about the Wartime Rear Mobilization -

Park, Young-j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bout the Wartime Rear Policies of North Korea during the Korea War (1950~1953). In this study analysis of the wartime rear mobilization were conducted. After the year 1949 the North Korea' regime pushes ahead on the ready to the war. Speciall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obilization and lives of the residents in the rear of North Korea from 1949 to 1953.

The second chapter is to analyze the building process and scheme of the wartime mobilizing system in North Korea during the Korea War. The third chapter is to research the policies about the residents mobilization about frontline and guerrillas. The fourth chapter is to analyze policies about the collecting of the war funds and the mobilization of the war finances.

And the fifth chapter is to study rear polices about the damaged persons in the war and their reliefs. Specially the reliefs were firstly forced to women in North Korea.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rear policies of North Korea during the Korea War were re-illuminated.

Key Words : The Korean War, The Wartime Rear Policy of the North Korea, The Residents Mobilization for the Frontline and Guerrillas, the Collecting of the War Funds and the Mobilization of the War Finances, the Mobilization of Reliefs for the Damaged Persons